나랏돈 횡령 주식투자하고 관용차 사적 이용

감사원, 지자체 등 공직기강 감찰 81건 비위 적발

곡성 공무원 1억8000만원 횡령, 국토연구위원 1억 유흥비

나랏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직무관련 업체에 갑질을 일삼으며 이득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출근시간을 조작하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아파트를 싼 값에 넘겨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81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7건(7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10건(19명)은 수사요청했다.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여수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근무했던 A씨의 경우 관용차량을 주말 장거리 출퇴근과 저녁 모임 참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495만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또 유연근무제를 악용,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신의 출근시간을 조작하게 하고는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곡성군청에서 세출금 집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1억8750만원의 세출금을 횡령,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B씨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소방령승진자 5명이 500만원을 모아 당시 본부장에게 300만원, 본부 과장 등 4명에게 각각 50만원씩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해 하반기에도 소방령 승진자 5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마련해 전달하려한 점으로 미루어 소방안전본부 내에 이같은 폐단이 관행처럼 정착돼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이밖에도 순천시는 재난·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 수의계약 체결, 하수관로정비공사 기성금 과다 지급, 생태하천 복원사업 교령공사 설계 변경 등이, 장흥군은 주차장 부지 확·포장 공사 수의계약, 목포시는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등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C씨의 경우 2013~2016년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1억920만원을 받아 유흥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D씨는 2011년 4월 자신이 감독하던 건설시공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정상가격보다 약 4000만원 싼 가격에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다음달부터 주거취약 계층 연중 전세임대주택 공급

다음 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계층에게는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서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임대를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보통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소록도 할매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영화 시사회

1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극장에서 소록도 할매천사로 알려진 마리안느·마가렛 두 수녀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시사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적용 방안 모색

전남도농기원·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원 잇딴 토론회

전남도농업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원 등 도내외 농업 관련 기관들이 잇따라 4차 혁명과 관련한 심포지엄이나 포럼, 대응단을 발족하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농업과 융·복합해 미래 농업 발전전략을 구상하자는 취지다. 고령화, 인력 부족, 수요·공급 실패, 저소득 등 전남 농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서둘러 발굴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보급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대회의실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길 원장 등 40여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에는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발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대응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날 발족식 후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의 농업적용 확대 전략', 김세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축산 책임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기반 지능형 스마트팜 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후 포럼위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전남도농업기술원도 지난 7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 발전전략'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심포지엄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혁명에 대비해 전남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방법 모색과 발전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경상 KAIST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에서 "서로 다른 기계와 사람, 산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 직업의 50%가 10년 내에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5배가 발생하는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농업도 급격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도 지난 2월 27일 4차산업 혁명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소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쏟아지고 있는 첨단기술을 어떻게 농촌과 결부시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창출하느냐가 농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과제"라며 "우선적으로 수확기 일손을 덜 수 있는 기술,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 등의 접목이야말로 전남 농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내년 착공 물건너가나

차량형식 결정 못하고 조달청 입찰 의뢰 지연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량형식 결정은 물론 시의회의 반발로 조달청 입찰의뢰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조달청 발주의뢰가 지연됐다.

광주시는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2호선 건설 관련 설명을 하고 조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시가 조달청 입찰의뢰를 위해서는 조달청 평가 수수료 등 예산 확보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차량형식에 대한 조달청 발주의뢰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무엇보다 책임과 안전성이 중시돼야 할 신호와 차량 통합발주를 시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의회 최종 입장 안을 마련해 시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조달청 의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시가 이달 중 조달청 발주를 의뢰한다 해도 공고와 설명회 등 수십일이 걸리는 만큼 후속 절차인 설계착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차량형식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작 실시설계 자체를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다.

보통 1년 이상 예상하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야 공사가 가능한 만큼 내년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착공 지연에 따른 혼란은 고무바퀴를 전제로 기본설계 진행한 시가 조달 입찰로 선회한 데다 입찰 참여 조건 완화 등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의 석연치 않은 주장 등도 논란을 더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일 해남·여수·순천서 지방의원 보궐선거

전남지역 4·12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12일 실시된다. 1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해남 제2선거구(도의원)와 순천 나선거구·여수 나선거구(시의원) 등 도내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앞서 지난 7~8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들 3개 지역의 평균 투표율은 11.09%였다. 해남 제2선거구에서는 총 유권자 2만5048명 중 3008명이 투표해 12.01%를 기록했다. 여수 나선거구는 8.45%(2만2746명 중 1923명), 순천나선거구는 14.38%(1만1212명 중 1612명)를 각각 기록했다.

해남 제2선거구 출마자는 더불어민주당 양재승 전 해남부군수와 국민의당 박성재 땅끝농협 이사 등 2명이다.

여수에선 민주당 김승호 전 국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이정만 법무사, 민중연합당 김종근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무소속 박남조 월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무소속 최처중 무덕체육관장 등 5명이 등록했다.

순천 출마자는 민주당 강형구 전 순천시의원, 국민의당 김호준 전 낙안원예협회장, 무소속 이명옥 전 언론인, 무소속 최진도 전 별량농업협동조합장 등 4명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섬진강 토속어종 황어 50만마리 방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 대표어종인 황어의 보존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대규모로 치어를 방류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은 10일 "섬진강으로 회귀하는 황어로부터 인공종자를 생산해 올해 어린 황어 5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 측은 회유성 어류인 황어의 수가 급감하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해오고 있다.

바다에 사는 유일한 잉어과 어류인 황어는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보내고 산란 시기가 되면 붉은 혼인색을 띠며 섬진강 중류까지 거슬러 올라오지만 최근 하천의 유수량 등 환경 변화로 회유량이 점차 줄고 있다.

수산과학원 산하 섬진강어류생태관은 황어가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미 고기를 확보해 인공종자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인공종자로 생산된 황어는 관람객의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돼 섬진강 어족자원 보존과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제공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